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마



양현종 오늘 LG전 선발... 왼팔 타박상 이상무를 평균자책점 6.92... 승 없이 시즌 4패 KIA 마운드 재건·분위기 쇄신 계기로

KIA타이거즈의 양현종이 에이스 본색을 드러낸다. 잠시 숨을 고른 양현종이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원래 로테이션으로는 지난 23일이 양현종의 출격날이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상이 변수가 됐다. 양현종은 앞선 17일 사직 롯데전에서 5회말 선두타자 신본기의 타구에 왼쪽 팔을 맞고 강판됐다.

다행히 단순 타박상에 그쳤지만 혹시 모를 부상을 염려한 벤치는 엔트리 제외를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양현종이 ‘이상 무’를 외치면서 대신 등판 날짜를 조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양현종은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올 시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5경기에 출격한 양현종은 6.92의 평균자책점으로 승 없이 4패만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 원정에서 9피안타(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7실점으로 부진하면서 2회를 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나기도 했었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양현종은 LG 트윈스와의 시즌 개막전을 6이닝 5피안타 1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책임졌지만 결과는 패전투수였다.

1회 무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 타선이 3안타 빈타로 9회까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

가 0-2, KIA의 패로 끝났다.

‘에이스’의 첫 승이 이뤄지면서 팀의 승리 쌓기에도 도움이 걸렸다.

선발승은 물론 승리 자체가 귀해지면서 KIA는 10구단 체제 첫 10위까지 기록했다.

양현종이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가정사로 지난겨울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던 양현종은 실전도 캠프와 시범경기 합해 8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양현종은 앞선 5차례의 등판에서 26이닝을 소화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에이스의 노련함으로 착실하게 훈련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도 채웠다.

팀 승리도 승리지만 양현종은 불펜의 구원자 역할도 해야 한다.

투·타의 불균형 속 고된 행보를 이어왔던 불펜진은 ‘마무리’ 김윤동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KIA는 24일 양승철과 이준영을 말소하고 전상현과 박정수를 투입하면서 마운드 수혈에 나섰지만, 불펜진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발진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양현종이 앞선 불운과 부진을 털고 마운드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득녀’ 안치홍, KBO 1호 출산 휴가

오늘 KIA 1군 엔트리 재등록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KBO리그의 ‘1호 출산 휴가 선수’가 됐다. 안치홍은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주축 선수의 갑작스러운 엔트리 말소였던 만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지만, 부상과 부진이 아닌 ‘출산’이 안치홍의 말소 이유였다. 이날 안치홍은 득녀를 하면서 잠시 엔트리를 비우게 됐다. 이에 따라 안치홍은 올 시즌 신설된 경조사 휴가제도의 첫 수혜 선수가 됐다.

KBO는 지난 1월 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올 시즌 경조사 휴가제도를 신설, 직계 가족 사망 또는 자녀 출생 시 선수가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엔트리에서는 빠지지만 엔트리 재등록 기간인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현역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휴가 기간에도 등록 일수는 인정된다. 경조사 휴가제도 덕분에 안치홍은 24일 휴가에 나섰고, 25일 엔트리에 재등록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해결사’ 펠리페, 7라운드 MVP

K리그2 여름·아술마토프 베스트 11에... 27일 안산전 8경기 무패 도전

광주FC의 ‘해결사’ 펠리페가 7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9 K리그2 7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광주 공격수 펠리페를 MVP로 선정했다. 펠리페는 앞선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골로 연결했다.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던 펠리페는 이번 경기를 통해 6라

운드 대전전에서 멈췄던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시즌 9호골을 만들었다. 펠리페와 함께 ‘중원의 사령관’ 여름과 선제골을 기록한 ‘수비수’ 아술마토프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1로 이기며 K리그2 유일 한 무패팀으로 선두 자리를 수성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안산 그리너스와의



펠리페 여름 아술마토프
경기에서 8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다골 다음 기회에

손흥민 브라이턴 수비공세에 연속 공격포인트 ‘스톱’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새로운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친 연속 공격포인트 기록을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손흥민은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과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종료 직전 교체될 때까지 공격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토트넘은 브라이턴의 밀집수비를 뚫고 후반 43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결승포를 터트려 1-0 진압승을 따냈다. 손흥민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다. 맨체스터 시티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멀티골을 꽂으며 몰아치기 득점을 이어가던 손흥민은 ‘약체’ 브라이턴을 상대로 ‘새 구장 연속 공격포인트’와 ‘한 시즌 개인 최다골’의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손흥민은 새로운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의 개장 축포의 주인공으로 새 구장에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 1도움)를 펼쳐왔고, 맨시티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멀티골로 이번 시즌 20호골을 쌓아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인 21골에 바짝 다가섰다.

손흥민은 의욕적으로 브라이턴전에 나섰지만 상대는 철저한 수비축구로 토트넘의 공세를 봉쇄했다. 왼쪽과 오른쪽 측면을 번갈아 가며 공격에 나선 손흥민은 4차례 슈팅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히거나 골대를 훌쩍 벗어나고 말았다. 후반 31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왼발 터닝슛이 골대를 벗어난 게 가장 아쉬웠다. 결국 후반 종료 직전 수비수와 교체된 손흥민은 새 구장에서 이어간 공격포인트 달성을 3경기에서 끝냈다.

손흥민은 또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경신의 기회를 오는 27일 웨스트햄 유니타리티드전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바르샤, 우승 눈 앞에

라리가 알라베스전 원정 2-0 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다. 바르셀로나는 24일 열린 알라베스와의 2018-2019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시즌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68-이하 아틀레티코)와의 격차를 더욱 벌린 바르셀로나(승점 80)는 리그 2연패 확정에 승점 1만을 남겨뒀다. 28일 레반테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길 경우 자력으로 우승을 결정짓는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아틀레티코가 25일 발렌시아전이나 27일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 한 번이라도 비기거나 진다면 레반테전 결과와 상관없이 바르셀로나는 1위를 확정한다.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 경기 선발명단에 리오넬 메시와 호르디 알바 등 주전 선수들을 제외했다. 리그 경기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에 지친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것이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9분 세르히 로베르토가 찰러준 패스를 카를레스 알레나가 간결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알라베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후반 15분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키커로 나선 루이스 수아레스가 성공해 승리를 굳혔다. 승기를 가져온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알바를 연이어 투입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게 했다. 주전들의 체력을 아끼고도 완승을 따내 리그 22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